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 축일 전 주일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선조들과 예언자들
크리티의 10인 순교자들

제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성탄절 전 찬양송 / 208, B 245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 208, B 253
- 사도경 : 히브리 11,9-10, 32-40 / 208, 봉독서 640
- 복음경 : 마태오 1,1-25 / 209, B 24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2018년 성탄절 메시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의 네 번째 한국 방문의 여운이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같이 복된 교회의 사건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사하며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계총대주교님의 방문은 하늘로부터의 방문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도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리스도 탄생 대축일의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밝아오는 우리 구세주가 찾아오셨도다. 동정녀로부터 주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어둠과 그늘에서 진리를 찾았도다.”(성탄 엑사포스텔라리온)

우리는 기쁨에 넘쳐 뛩니다. 왜냐하면,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말씀께서 우리를 죽음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와 잘못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방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입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볼 수 없는 분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셨으며, 육체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II 고린토 8:9) 우리 정교회는 이 신비를 인간의 유한한 지적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비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신 이 신비를 우리 구원의 시작으로 경험하고 누립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하신 이날, 우리는 각자 세상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다른 모습”(마르코 16:12)의 그리스도인 그들을, 오늘날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줍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게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교회의 참된 신앙을 증언하고, 세상에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됩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비인 하느님의 세상 방문이 우리 각자에게 더욱 은혜롭고 희망 넘치는 삶을 가져다주고 오늘날 세상의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우리의 성직자들과 우리의 협력자들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성탄 축일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육신을 취하시고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큰 사랑과 존경과 함께,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





성탄절 밤 (성 에프렘 시리아인)

오늘 밤은 정결한 밤, 우리를 깨끗케 하시려고 순결하신 분이 나타나셨네! 우리의 청각을 깨끗이 합시다. 우리의 시각을 순결하게 하고, 마음의 느낌을 거룩하게 하며, 말은 진실하게 합시다!

오늘 밤은 화해하는 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맙시다!

오늘 밤은 온 세상에 평화를 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남을) 위협하지 않게 합시다. 오늘 밤은 가장 온유하신 분의 밤입니다. 아무도 잔인하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밤은 가장 겸손하신 분의 밤입니다. 아무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은 기쁨의 날입니다. 불쾌한 일이나 모욕에 대해서 양감음하려 하지 맙시다! 지금은 선한 의지의 날입니다. 가혹하고 무자비해지지 맙시다. 이 고요하고 평온한 날에 화내며 안달하지 맙시다!

오늘 하느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의인이 스스로 죄인들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합시다!

오늘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이를 자기 식탁에 초대하게 합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울면서 구걸하는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또한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문을 엽시다!

오늘 삼위이신 하느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성의 옷으로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 아타나시아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2월 2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
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오래도록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성탄절과 신년, 신현 축일 예배 일정

- 2018년 12월 24일(월)
오전 : 성탄절 대시과
오후 : 성탄 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2018년 12월 25일(화)
오전 : 성탄 대축일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성탄 대축일 행사 및 사랑의 오찬
- 2018년 12월 31일(월) 오후 : 축일 대만과
- 2019년 1월 1일(화)
오전 : 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바실로빠따 축성 기도식. 다과
- 2019년 1월 4일(금)
오전 : 신현축일 대시과
- 2019년 1월 5일(토)
오전 : 신현 축일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후 : 신현 축일 대만과
- 2019년 1월 6일(일)
오전 : 신현 축일 조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
찬예배, 신현 축일 대성수식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2019년도 신자총회 공고 > 인천 성 바울로 성
당 운영위원회는 2019년 1월 21일(월요일)에
개최되는 한국정교회 대교구의회 참석 준비를
위해 인천 성 바울로 성당 2019년도 신자총회
를 오는 12월 30일(주일) 성찬예배 직후에 성
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세
례 받은 정교회 신도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신
자회비를 납부한 후 결의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수련회 > 초·중·고등부가 12월 28일-30일
(이박 삼일) 그리고 청년부는 12월 26일-28
일(이박 삼일) 동안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장소는 청년회
가 경남 사천에서 할 예정이며, 초·중·고등부
는 성당입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당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자총회 > 2019년 1월 13일 둘째 주 일요일
성찬예배 후에 신자총회가 있습니다. 예·결
산과 사목 보고 그리고 공석에 있는 재무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총회 참석에 자격되는 분
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서 교회의 전반적인 여
러 부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세례 및 건진성사를 축하합니다 > 성당 축일
을 맞이하여 그동안 준비 중이던 예비자들이
12월 16일(일)에 테올로고스 신부, 우종현 안
토니오스 신부, 박인곤 요한 보제의 집전으로
성사를 받고 우리와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언
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황민 베드로, 기다운 솔로모니,
김나경 소피아, 왕현우 안드레아, 문보근 미
카엘, 조미령 마리아, 문예은 안젤라, 문예람
가브리엘, 문예아 크세니.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신자총회 > 2019년 1월 13일 주일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참석에 자격되
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2월 27일(목) 성 스테파노스 대보제 첫 순교자 축일, 성 테오도로스 수사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